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5호 【루계 제24698호】 주체103(2014)년 10월 1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 백절불굴의 기상떨치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성과 확대

### 계획된 먹이풀수확과 비배관리, 송변전공사과제 수행, 대상건설 힘있게 추진

뜻깊은 10월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마음을 안고 분발해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백절불굴의 기상,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한달동안에 1만5 000여t의 먹이풀을 수확하였으며 먹이풀판 240여정보에 모보식, 7 000여정보에 대한 김매기, 비료주기와 전주세우기, 건물건설, 구조물공사 등 송변전공사계획을 100% 수행하였다. 또한 수십동의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을 완공한 기세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앙현장지휘부에서는 공사대상별, 단계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맡겨진 전투과제를 제기일내에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자재보장을 앞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현지에 나가 시공지도를 실속있게 하였다. 정치일군들이 전투장마다에서 먹이풀생산과 대상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자고 호소하면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먹이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2 000여정보에 식물성장촉진제를 뿌려 먹이풀의 겨울나이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돌격전을 벌렸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에서 바란다면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창조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총국책임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20t의 집짐승배설물을 운반하여 포전에 냄으로써 먹이풀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였다.

대성지도국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애로가 막아서고 힘겨울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투쟁을 지켜보신다는 자각으로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먹이풀비배관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대상건설에 력량을 총집중하여 여러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의 완공을 앞당겨나갔다.

보건성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의 한생이 어려있는 조국의 한부분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킬 각오안고 먹이풀판에 대한 7회김매기, 가을철덧비료주기를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대흥지도국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도 계획된 면적의 먹이풀판조성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자강도려단에서 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시공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살림집건설성과를 높여나갔다.

평강군사단의 라선시려단에서 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일군들은 시공을 전문화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시공일군들과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돌격대원들은 사회주의청춘대지에 건설의 번영기를 펼쳐놓을 승리자의 자각안고 립체전을 벌려 10여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결과 올해 계획된 대상건설을 이달말까지 완공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전력공업성려단에서 송변전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수리개의 용맹을 떨치며 전주세우기공사계획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6개의 구조물공사를 끝냈으며 8동의 건물공사도 힘있게 다그쳤다.

성, 중앙기관, 각 도책임일군들이 돌격대원들과 한전호에 선심정으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줌으로써 풀판조성과 대상건설성과를 적극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륙해운성, 대성지도국, 외교단사업총국, 소금공업관리국 책임일군들이 현지에 나와 자기 단위 돌격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세멘트, 환강,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일정계획에 맞게 마감자재들을 앞질러 보내주도록 함으로써 자기 단위 돌격대들이 대상건설을 제기일내에 질적으로 해제끼도록 하였다.

라선시, 자강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책임일군들은 도와 시, 군의 일군들을 발동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떠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많은 건설자재들과 생활필수품들을 가지고 현지에 나간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들이대여 돌격대원들이 풀판조성과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였다.

인민봉사총국 책임일군들은 먹이풀의 생육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방도를 찾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돌격대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주꽃자리풀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하였다.

교육위원회, 상업성, 문화성, 국토환경보호성, 평양원예지도국의 책임일군들도 돌격대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대상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먹이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 새로운 부하전력관리체계가 은을 낸다

## 자강도송배전부에서 부하전력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 지난 3년간 총 9억kWh의 전력예비를 조성하여 효과적으로 리용

자강도송배전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부하전력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여 막대한 실리를 얻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부강조국건설과 그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자강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2011년 5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현대적인 부하전력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도내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력공급을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드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이들은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였다.

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박사 김덕수동무를 비롯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함께 수많은 첨단과학기술자료들을 분석하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도안의 근로자들과 도송배전부의 종업원들도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현대적조형미를 갖춘 2층짜리 전력계통종합조종실건물을 빠른 시일안에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불과 넉달동안에 10여개의 시, 군송배전소들과 수십개의 주요공장, 기업소들, 도안의 변전소, 발전소들을 망라하고 1 000여대의 부하전력관리장치, 전력선대화기를 비롯한 현대적설비들로 이루어진 부하전력관리체계가 구축되였다.

이 새로운 부하전력관리체계의 도입으로 하여 도송배전부에서는 도안의 전력계통들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공장, 기업소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교차생산조직을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든든한 과학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이 체계는 단위별부하특성에 맞게 전력공급을 조절하면서 어떤 정황속에서도 체계기동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는 수자식보호기능을 가지고있다. 또한 전력선을 통하여 음성 및 수자자료통신을 보장하며 생산단위와 소비단위들에 련결된 부하전력관리장치를 원격으로 조종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이처럼 도송배전부에서는 발전소들의 전력증산에 이바지하고 생산된 전력의 질을 높여주며 또 많은 전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여주는 등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은 부하전력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1년 10월초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총 9억kWh이상의 전력예비를 조성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만한 전력량이면 도에서 수만kW능력의 대규모발전소 하나를 거저 얻은것이나 다름없으며 이것만으로도 큰 공장, 기업소를 여러개나 돌릴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또 그들대로 주파수가 안정된 질좋은 전기를 공급받는것으로 하여 설비와 기대가동률이 훨씬 높아지고 생산제품들의 질을 보다 개선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고있다.

지금 자강도송배전부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장치개발과 도입사업을 계속 힘차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한경철

# 가을걷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애국의 열정안고 떨쳐나선 평안북도와 남포시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걷이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평안북도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의 전반적인 시, 군들에서 9월 25일까지 강냉이가을걷이와 이삭철수를 끝낸 기세드높이 벼가을걷이에 력량을 집중하여 10일현재 벼가을걷이를 98% 이상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가을걷이에 력량을 집중하여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가을걷이를 와닥닥 끝낸 기세드높이 벼가을과 벼단꺼들이기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염주군, 곽산군, 신의주시에서는 선전선동력량을 집중하여 가을걷이전투에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농장과 농장, 작업반과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 남포시에서

남포시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이 벼가을과 함께 벼단꺼들이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벼단꺼들이기전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시의 운반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벼단운반실적이 계속 오르게 하고있다.

시의 농장벌들에 달려나간 각급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벼단꺼들이기전투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온천군의 여러 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의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지원자들은 애써 가꾼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벼단꺼들이기 실적을 높이고있다. 항구구역과 천리마구역의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은 벼가을이 끝나는 차제로 벼단꺼들이기전투를 기동적으로 벌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시의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은 벼단을 꺼들이는족족 제때에 말리워 벼탈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박천군을 비롯한 중간지대의 군들에서도 벼가을걷이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도에서는 낟알털기와 정미에 필요한 전기를 시, 군협동농장들에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탈곡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이밖에도 창성, 벽동, 동창, 운산군을 비롯한 산간지대의 군들에서도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특파기자

# 년간 수산물생산계획 넘쳐 수행

## 황해남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아래 수산협동조합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힘찬 투쟁을 벌려온 황해남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아래 수산협동조합들에서 9월 25일까지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위원회 당조직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일군들과 양식공,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은 각 수산협동조합들에서 고기배의 현대화와 배무이를 다그치고 과학적인 어로방법과 바다나물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울려퍼지도록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었다.

위원회아래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수산물생산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생산전투를 치렬하게 벌리였다.

그 앞장에는 3대혁명붉은기재령수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섰다. 조합의 일군들이 일기예보와 바다상태를 잘 알고 생산지휘를 능숙하게 하는것과 함께 자주 양식장에 나가 다시마의 성장에 따르는 생육상태를 조사하면서 기술지도를 따라세웠다.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양식공들이 다시마솎음생산을 과학적으로 하고 끌배와 끌림배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하여 조합에서는 상반년기간에 벌써 년간 바다나물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구월수산협동조합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본받아 련일 수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림명길동무를 비롯한 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수십척의 배무이를 하고 여러척의 안강망선에 대한 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냄으로써 제날자에 출항을 보장하고 출어일수를 늘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어장선택을 바로하고 앞선 물고기잡이방법을 받아들이며 온 한해 수산물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힘찬 어로전투를 벌리였다.

장연, 연안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당의 의도에 맞게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수행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운 서해, 은률수산협동조합, 옹진재배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위원회아래 모든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협동조합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며 수산물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위원회아래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물고기잡이를 계속 내밀면서 어장과 시설물정리, 종자받을 준비, 고기배의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물고기잡이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 매일 1천t이상의 감자를 가공

##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서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 비약의 불바람이 일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매일 1천t이상의 감자를 가공하고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감자가공실적이 1.4배로 장성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가공공장의 처리능력을 늘여야 할것 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 건설한 감자처리공정의 시설들과 기계들의 가동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올해 군적으로 감자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내다보는 실정에 맞게 감자가공을 적극 따라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감자가공공정들에 만부하를 걸기 위하여 전반적인 설비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또한 세척공정에서 물에 의한 감자운반을 스크류에 의한 운반으로 전환시켜 많은 물을 절약하고 건조공정에서 페열을 리용한 건조방법을 받아들여 건조능력을 1.2배로 높인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공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모든 공정마다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접수공정을 맡은 로동자들은 자동차머무름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분발하고있다. 세척공정을 맡은 생산자들은 제품의 질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감자를 빠른 시간안에 세척하여 다음생산공정에 제때에 넣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정제공정을 맡은 생산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건조공정을 맡은 생산자들은 교대당 50t이상의 농마를 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서로 돕고 이끌며 치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금 감자가공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 사회주의대가정의 가풍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못난 자식, 잘난 자식이 따로 없고 상처입은 자식을 더 따뜻이 품어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누구나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 뉴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서고있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선군시대의 새 풍경을 자랑하며 날이 다르게 솟구치고있었다. 이날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없는 기쁨에 넘쳐계시였다.

원아들이 리용하게 될 침실과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 오락실뿐아니라 보육원, 교양원들의 생활실은 물론 후생시설들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잘 건설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아이들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어도 최상으로, 시설도 최고로, 내부와 외부의 구조도 최대의 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건설하도록 하시는 한마디한마디의 말씀에서 일군들은 우리 원아들에게 세계적인것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사랑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크도록 하게 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세상에 고아라는 말이 생겨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처럼 부모없는 아이들이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최상최대의 특혜를 받으며 부러움없이 자란적이 또 언제 있었던가.

격정에 젖은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 바다와도 같은 사랑의 세계는 얼마나 무변광대한것인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다시금 건설장을 둘러보았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일떠서는 현대적인 건축물에서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사는 사랑의 품이 헤아려지고 원아들의 동심에 맞게 꾸려지는 곳곳마다에서 전체 인민이 누려갈 행복의 앞날이 눈앞에 보이는듯싶었다. 부모없는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사회주의대가정의 가풍이 어떻게 마련되고 꽃펴나는가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지난 1월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며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량까지 몸소 수첩에 계산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

중량부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써부터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보시는것만 같고 물고기떼가 기다리는것만 같으시여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한 일에서 크나큰 보람을 찾으시고 그 일이 잘되여나가면 더없이 기뻐하시는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였을 때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였다.

사회주의조국의 혜택속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토록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젖어드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군인들뿐이랴.

인민의 감격으로 온 나라가 설레이였다.

그 언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선에서 못해낸 일이 없었던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우는 길에서 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우리 당이 인민들과 한약속을 지켜 영웅적위훈을 떨치였다.

어찌 그뿐이랴.

어머니당의 품속에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심장에 새긴 대성산종합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의 보양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원아들이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몸소 병원에까지 찾아오시여 하나같이 혈색이 좋고 보동보동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것은 그대로 온 나라 대가정의 사상감정으로 되여 우리 인민모두가 격정의 눈물을 쏟지 않았던가.

국제아동절에도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친부모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며 이 땅의 누구나 목메이였다.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은 원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며 오늘도 조국땅 방방곡곡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부모없는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사회주의대가정의 가풍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의 품속에서 이렇게 마련되고있는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어머니당의 후대사랑과 미래사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었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은 이 땅에 나래치는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속에 더더욱 자랑스러운 현실을 펼치고있으며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은 더욱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인민은 누구나 《조국찬가》의 노래와 더불어 복받은 삶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모든 꿈을 이루어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던 나날에

### 어머니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당일군을 전화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당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동무가 지금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시 촬영소당조직에서는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그 당원을 다른 직무에 옮기기로 결정하였었다.

일군이 올리는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동무들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은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당은 어머니당입니다. 어머니당의 당일군은 언제나 혁명적원칙성이 있으면서도 끝없이 너그러워야 하며 응심깊어야 합니다. …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그 동무의 정치생활은 자신께서 보증하겠으니 그에게 더 중요하고 책임적인 임무를 맡기자고, 그는 당의 정치적신임에 꼭 보답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끝났지만 그이의 가르치심은 더욱더 큰 메아리로 일군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 사소한 문제라도 놓치지 말라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단위에 꾸려놓은 합숙을 돌아보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합숙의 2층으로 오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층계의 계단을 얼마쯤 내리시다가 다시 오르시는것이였다.

그러시기를 몇번,

주위는 조용한데 다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단을 밟으실 때마다 나무로 만든 계단에서 나는 자그마한 삐걱소리만이 울릴뿐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 계단을 오르내리겠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서야 되겠는가고, 밤일을 하고 돌아와 쉬는 동무들의 단잠을 깨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고 다 세심히 보살펴주고 해결해주는것이 바로 일군들이라고, 여기에 나무계단대신 콩크리트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인조대리석미장을 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사소한 문제라도 놓치지 말라!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로잡아주신 부족점은 비록 크지 않은것이였지만 일군들이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숭고한 뜻은 참으로 큰것이였다.

### 첫째도 둘째도 군중과의 사업

주체60(1971)년 여름 어느 한 단위의 사업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의 당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에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당시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대렬구성상태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핵심으로 될만 한 사람들을 보충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군들로부터 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과 군중과의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옳바로 리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제는 동무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이끌어주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것은 바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앞으로 정치사업을 잘해서 그들모두를 다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첫째도 둘째도 군중과의 사업!

참으로 이것은 모든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 당사업의 근본을 밝힌 귀중한 명언이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삭주혁명사적교양실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 수필 출근길에 대한 생각

하루일은 출근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당의 뜻깊은 명절들을 안고있는 10월이여서인지 이즈음에도 누구나 여느때없이 바쁜 걸음으로 출근길을 다그친다.

첫새벽에 벌써 부대에 출근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비앞에 선 지휘판도 있고 언제 공장에 나왔는지 사연깊은 사적기대를 정성스레 닦는 기대공도 있다. 장난세찬 두 어린 자식과 달리기를 하다싶이 하며 종주먹을 부르쥐고 떼이른 출근길에 오른 녀성사무원도 있고 등교의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눈을 뜨자부터 어머니를 재촉하는 나어린 소년단원도 있다. 이 나라의 어디서나 이런 출근광경이 펼쳐지고있다.

직종과 나이, 사는 곳과 일터는 서로 달라도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가슴에서 하나로 높뛰는것은 남먼저 출근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고 자기 단위의 혁명사적비들에 선참으로 깨끗한 지성을 바치며 누구보다도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여 첫자리를 차지하려는 아름다운 승벽의 마음이다.

이런 충정의 사상감정으로 흐르는 우리 인민의 출근길을 어찌 뭇사람들이 말하는 범속한 의미에서의 《직장에 나가는 길》에 비길수 있으랴.

과연 이것을 보통의 출근길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따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출근길에 대하여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출근길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정이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옥류교가 세워지게 된 사연에 대하여 들려주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한g의 강재, 한줌의 세멘트가 그처럼 귀하던 1950년대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류교를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시 대동강웃쪽 사람들은 불편하게 대동교로 에돌아 출근하거나 나루배를 타고다니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을 두고 누구보다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아침 동평양지구를 돌아보시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과 함께 대동교를 건느시고나시여 일군들에게 우수경칩에 대동강의 얼음은 풀리고있는데 인민들의 소원은 풀리지 못하고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출근이 늦을가봐 어린애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반달음으로 대동교를 건느던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도 인민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인민들의 소원을 빨리 풀어주자고 하시면서 옥류교건설을 애초에 일군들이 예견하고있던것보다 훨씬 앞당겨 시작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이른새벽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면서 다리위치를 잡아주시고 여러차례 건설현장도 찾으시면서 만년대계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찌 옥류교뿐이겠는가.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다니는 사적무궤도전차들에 깃든 사연이며 정류소들의 번호판이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 평양지하철도에 새겨진 사랑의 전설…

인민들의 출근길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남먼저 찬 새벽이슬을 맞으시고 지는 달도 제일 마지막까지 바래우시며 크나큰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의 자욱이 지금도 우리들의 출근길에서 끝없는 생명력을 뿜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출근길에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출퇴근이 따로 없는 헌신의 세계가 깃든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몇이랴.

하다면 우리 수령님께 정말로 출근길이 따로 없었는가.

아니다. 우리 수령님께도 출근길이 있었다. 인민을 위하여 맞으시는 첫새벽이 그이의 출근시간이였고 인민을 찾아가시는 현지지도길이 바로 수령님의 출근길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을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또다시 뵈올 때 얼마나 가슴적시며 눈물짓던 우리 인민인가.

한평생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새날의 사업을 시작하시였으며 새벽 1시를 초저녁으로 여기시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선군길에 불같은 헌신사를 수놓으신 우리 장군님,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거룩한 자욱을 이어 인민의 행복을 위한 력사의 생눈길을 헤치고계신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담긴 절세의 위인들의 그 숭고한 뜻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내딛는 첫 자욱이 바로 우리들의 출근길인것이다. 그래서 남먼저 출근하여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뵙고싶어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선참으로 알고싶어하며 원수님께 기쁨드릴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기 위해 순간의 드팀도 없는 하루하루를 바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그렇다. 우리의 출근길은 단순한 직장길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의 첫걸음이며 그처럼 뵙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충정의 첫 자욱이다.

누구나 출근길을 소홀히 하지 말자.

출근길의 한초한초가 늦어질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이 그만큼 떠지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자.

한생을 변함없는 충정의 출근길에 살자!

본사기자 김준혁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라보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각하**

나는 적도기네독립 4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적도기네정부와 인민이 끊임없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10월 8일 평 양

## 혁명전통교양을 짜고들어

통천군 미평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매달 학습하여야 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제목들을 선정해주고 독보와 연구발표모임 등의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당세포비서들, 선동원들이 회상기학습에서 앞장서도록 하면서 그들이 회상기의 내용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포전에 나간 한 리당일군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한 내용의 회상기를 가지고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이 보여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농사일을 매일 계획대로 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농업근로자들은 하루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투쟁해온것처럼 자신들도 쌀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해갈 불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당면한 농사일에서 련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철준

#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지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도해나가는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존엄떨치고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당이 강화발전되여온 성스러운 로정에서 주체81(1992)년 10월 10일에 발표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은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사상리론적재보이며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당건설은 혁명의 근본문제이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때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력사적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고귀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로작에는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과 그 수행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의의깊은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우리 당을 단결력과 조직력, 전투력에 있어서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 있어서 최상의 높이에 오른 백전백승의 혁명적당,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주체적당건설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우리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존엄떨칠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혁명적당의 공고성과 위력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여야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의 당들에서 무규률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당안에 분파가 생겨 당이 사분오렬되고 나중에는 그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것은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지 못한데 주되는 원인이 있다.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건설의 고귀한 경험이다.

당안에 오직 수령의 사상과 령도만이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확고부동한 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필승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만이 차넘치고 전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억척불변의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전체 당원들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수령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당안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수령의 당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은 일찌기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고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우리 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한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도덕의리적통일단결이라고 강조하시였다.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위력은 곧 단결의 위력이며 가장 공고한 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다. 의무감에 의한 결합이나 실무적단합은 오래갈수 없으며 혁명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당건설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이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해나갈 때 당의 통일단결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질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건설력사가 가르쳐주는 철리이다.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기치높이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은것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려는 신념이 확고하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이 꽉 차넘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굳게 단결된 불패의 통일체로 자랑떨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하고 령도자의 권위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려는것이 천만군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이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와 타래치는 불길속에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켜낸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위훈은 수령결사옹위를 근본초석으로 하여 다져진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령도자의 두리에 친결, 만결의 성새를 이룬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척불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우리 당을 강한 전투력과 령도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생명선이다. 인민대중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사업은 오직 당의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어떻게 전진시켜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령도하는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우리 당은 장구한 기간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여 인민대중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과 같이 언제나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 조직력과 전투력, 혁명성과 규률성이 강한 혁명적당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시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확립되고 당세포를 비롯한 모든 당조직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가 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기에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건설업적을 생명선으로,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갈것이다.

리강철

#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우리 식의 창조물로

##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 주체건축발전의 비약적담보를 마련한 긍지

### 현장지휘부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선군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년대가 새겨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자리잡은 중앙동물원 1단계 개건보수공사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추진된 공사정형을 놓고 현장지휘부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개건보수공사정형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현장지휘부 부책임자 조광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해전 5월과 지난 3월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이곳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전변시킬것을 발기하신데 이어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설계와 시공, 설비와 자재보장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번 공사는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이 확고히 구현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도록 중앙동물원의 50여개 대상을 우리 식으로 단숨에 일신시키는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이였다. 중앙동물원의 넓은 구획안에 물개재주장, 승냥이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이 새로 건설되고 원숭이관, 앵무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사들이 종전의 형식과 규모에 대비할수 없이 달라졌다.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동물사들이 완공된 속에 일부 대상들의 마감시공과 운영설비조립이 한창이다.

**현장지휘부 정치일군 김철:** 공사기간 현장분위기를 돋구는 화선식경제선동이 고조를 이루었다. 선동구호판들과 영예게시판, 속보판 등 각종 직관물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수십개소에 이동식선동기재들이 배치되여 건설자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를 비롯한 각급 예술단체들의 경제선동활동도 박력있게 벌어져 공사장전역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기자:** 동물사들의 설계상 특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알고 싶다.

**설계분과장 최일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모든 동물사와 봉사시설을 설계형성안으로부터 마감공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창조물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동물재주장과 파충관, 물개재주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건물들은 원형지붕구조로 설계되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과 류경건설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설계가들은 모든 대상을 다양한 동물들의 생육조건과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데 힘을 넣어 중앙동물원을 계절을 모르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거점으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설계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에 제시된 주체적건축사상을 실천에 구현하여 건물의 조형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해당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맞는 벽화형상과 구조형식을 완벽히 갖추어 타조사와 공작새관처럼 건물의 외부만 보아도 매 동물사를 구별할수 있게 형성안을 작성하였다. 보다 특징적인것은 겹유리와 자연판석을 비롯한 국산화된 마감건재를 광범히 리용하도록 동물사들을 설계한것이다.

결과 관람자들이 맹수들을 실내 및 야외관람창을 통해 눈앞에서 관람할수 있어 직관성과 생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게 하였다.

**기자:** 시공과정에 이룩되는 성과가 적지 않다고 본다.

**시공분과장 주상국:** 중앙동물원의 1단계 개건보수공사는 매 동물사들의 형식이 다양하고 공사량이 방대하여 시공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웠다.

특히 파충관의 지붕을 비롯한 여러 대상은 시공방법이 생소하여 공사기일이 적지 않게 걸릴수 있었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기술자, 건설자들은 아름찬 공사과정에 지상과 공중에서의 확대식조립공법과 질좋은 혼합물공급체계를 비롯한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능률적인 기공구를 수많이 받아들여 공사기일을 줄이면서 건설자재도 극력 절약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시공단위별로 많은 목재와 마감자재를 자체로 마련하면서 공사과제를 대상별, 날자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립체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그 과정에 중간검사를 비롯한 기술검사제도가 크게 은을 내고 관람과 개건보수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조건에서 걸음길과 현장주변정리, 원림록화사업에서도 혁신이 창조되였다.

**현장지휘부 부책임자 조광철:** 공사기간 우리는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유리건재와 타일, 건구류와 색감을 비롯한 국산화된 건재를 마감공사에 대대적으로 리용하였다.

우리는 1단계공사기간에 우리의 설계와 기술, 우리 건재로 동물사들의 종전모습을 흔적조차 없애고 새롭게 일신시킨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2단계 개건보수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겠다.

**기자:** 목표도 높고 전망도 락관적이라고 본다. 공사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을 영웅적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자랑떨치기 바란다.

## 조선속도창조의 나날에

### 집중공세의 불바람

릉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는 대외건설지도국적인 총공사량의 50%이상을 맡고있다.

그중 원숭이관과 앵무관을 비롯한 여러 동물사들의 확장면적은 종전에 비교조차 할수 없다. 원숭이관에 형성된 인공바위면적만 하여도 1만 8천여㎡에 달한다. 이처럼 방대한 공사량은 어떻게 수행된것인가.

사업소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속에 공사의 매 단계마다 해당한 시공력량이 주요대상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였다. 결과 시공단위들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원숭이관건설을 맡은 3직장과 8직장 전투원들은 하루최고 100여㎥의 콩크리트치기를 다그치고 타조사를 맡은 5직장 전투원들은 공사속도를 2배로 높였다. 15직장이 맡은 동물재주장은 이틀안에 종전건물이 없어지고 보름만에는 골조공사의 90%계선이 돌파되는 기록이 창조되였다.

공사전기간 집중공세의 불바람속에 이러한 성과들은 끊임없이 확대되였다.

### 형강소비량을 줄인 혁신안

지난 9월 옥류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앞에 아름찬 공사과제가 나섰다.

승냥이사의 야외놀이장둘레에 전부 유리건재로 된 관람창을 세워야 했던것이다. 놀이장둘레의 길이는 200m나 되였다. 여기에 한장이 2㎡이상 되는 유리건재를 세워야 할 량은 200장이 넘었다. 이런 시공은 사업소의 건설자들에게 있어서 생소한것이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 설계가들의 진지한 론의가 벌어졌다. 얼마후 유리건재조립을 위해 형강을 잘 선택하고 묶음식으로 시공하자는 안이 나왔다.

련이어 시작된 전투과정에 7직장 전투원들이 집단적혁신의 기수로 자랑떨치였다. 이들은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형강골조조립과 겹유리설치를 질적으로 다그쳤다.

불과 열흘안팎에 진행된 공사과정에 형강이 절약된 량은 적지 않았다.

### 질제고에 비낀 열정

류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전투원들이 시공한 범사의 실내관람통로와 새로 일떠선 개관을 비롯한 건설물의 질은 그 어느 단위보다 높다.

맹수들이 드나드는 동굴을 방불케 하는 범사의 관람통로는 나흘만에 손색없이 형성되였다. 빠른 기간에 추진된 공사의 질은 어떻게 담보된것인가.

사업소의 일군들은 마감공사가 한창인 나날에 모든 대상을 형성안그대로 시공하기 위한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였다. 전투원들도 떨쳐나섰다. 4직장을 비롯한 시공단위 전투원들은 마감공사시작에 앞서 한그루의 나무를 부각하는 장식미장때에도 합리적인 기공구를 다양하게 만들어 공정수행에 적극 리용하였다.

사업소가 맡아 시공한 5천여㎡의 면적에 60여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개관을 비롯한 모든 건설물들의 질은 이렇게 담보되였다.

— 물개재주장에서 —

## 격전의 불길속에 창조된 위훈

###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파충관의 지붕시공을 앞두고 공사가 수월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극히 적었다.

타원형으로 된 2천수백㎡의 건축면적에 강판트라스를 얹고 그우에 서까래격인 형강을 설치한 다음 유리건재로 마감해야 하는 공사는 기술준비로부터 많은 품을 들여야 했다. 하다면 이들이 새 건축창조의 기수로 자랑떨친 비결은 무엇인가.

공사의 하루하루에 완공의 날이 비껴있다는 자각이였다.

완공의 날과 잇닿은 창조적위훈이 새겨지던 나날에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이 트라스조립을 협조하였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여 단 보름만에 트라스설치가 완성되였을 때 보다 어려운 공사는 앞에 있었다.

높은 정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형강과 유리건재조립은 건물지붕이라기보다 하나의 기술집합체라고 할수 있었다. 형강을 한개씩 세부적으로 조립하면 정밀도를 보장할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방법론이 있어야 했다.

진지한 론의끝에 형강을 지상에서 여러칸씩 묶은 다음 기중기로 자기 위치에 들어올리기로 하였다. 둥근 지붕을 위훈의 활무대로 여기고 떨쳐나선 4, 7직장의 연공들이 한개 중량이 수십kg이나 되는 유리건재조립실적을 시간별로 높일 때 5, 2, 8직장의 전투원들은 건물내부의 동물칸들과 고리형관람통로공사성과를 동시에 확대하였다.

공사에 리용할 발대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대를 건물바닥에서 올려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기발하게 천정트라스에 고정시켜 내리설치하는 방법을 착상한 시공일군들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한 전투원들…

손색없는 창조물에 건설자의 긍지와 보람이 비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총건재조립량이 방대한 파충관의 웅자가 뚜렷이 드러난 지금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새로운 창조의 기수로 자랑떨칠 결의에 넘쳐있다.

## 혁신의 불길과 송풍기

### 대외건설지도국 일군들

중앙동물원 1단계 개건보수공사과정에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들이 맡은 대상은 총공사량의 70%를 헤아린다.

이 방대한 공사가 적극 추진된 성과속에는 비약의 불길이 확대되도록 송풍기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한 지도국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건설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수십개의 대상공사가 동시에 벌어진 현장부지는 대단히 넓다.

지도국일군들은 그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높이고 공사의 성과적추진을 위해 방법론을 찾고 혁명적으로 실천하였다.

건설과정에 어려운 정황은 수시로 제기되군 하였다.

류춘룡, 김대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련못정리공사를 비롯한 시공이 어렵고 공사량이 많은 대상이 제기될 때마다 여러 단위를 집중과 분산배치하는 방법을 효과있게 리용하였다. 앵무관과 원숭이관, 표범사를 비롯한 시공이 어렵고 많은 공사량을 수행해야 하는 대상들에 력량을 집중시킨 작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는 긴장한 자재를 해결하여 공사를 추진시키는데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지난 장마철을 앞두고 여러 대상의 지붕공사를 끝내야 하였을 때 100여㎥의 목재와 함께 모래와 혼석보장에 지도국적인 관심이 돌려졌다. 결과 당면한 공사는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되였다. 파충관의 원형지붕공사와 원숭이관을 비롯한 여러 동물사들에 인공바위를 형성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지도국일군들이 공사가 중단없이 추진될수 있게 한 사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찌 그뿐이랴.

동물사를 옮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어려운 조건은 적지 않았다.

사양공들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야외공사때에는 동물들을 실내에, 실내공사때에는 야외에 옮기고 모든 공사를 추진하자면 시공기일을 최대로 줄여야 하였다. 하기에 낮에 밤을 이어가며 혁신의 앞장에서 화선지휘관이 되여 앞채를 메고 내달린 지도국의 일군들이다.

건설자들의 경쟁열의를 한층 북돋아주며 시공지도를 책임적으로 진행한 한욱, 정영주, 조운식, 최철호동무들과 건설공정이 수시로 달라지는 정황에 맞게 기술준비를 확고히 앞세워 보장해나간 리혜영, 박경성동무들…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기수가 되려는 지도국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공사에 참가한 지도국아래 모든 단위들이 앞으로의 공사에서도 성과를 비상히 확대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 공격형으로 일관된 일본새

### 조선인민내무군 김동철소속부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답게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의 첫삽을 박던 때는 불과 몇달전이다.

그 나날에 조선인민내무군 김동철소속부대가 맡은 건설대상들에서 종전의 모습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충정의 마음을 간직한 이들이기에 공사의 매 단계마다 사색과 실천은 드센 공격전으로 이어졌다.

소사의 건물공사를 끝내고 놀이장둘레에 방틀을 형성할 때였다.

기존의 방법대로 직경이 큰 방틀을 설치하면 그사이가 좁아져 놀이장을 관람하는데 불편할수 있었다. 방틀의 직경을 줄여야 했다.

지휘관들이 진지한 론의끝에 한가지 방도를 찾아냈다. 직경이 작은 강판으로 방틀을 형성하자는 안이였다. 얼마후 부대적으로 100여m나 되는 구간에 방틀구조로 쓰일 수백m의 강판이 확보된 결과 놀이장의 모습은 더욱 볼만 해졌다.

불같은 공격전은 수달사주변에서도 벌어졌다. 1 500여㎥의 굴착량과 900㎥의 막돌쌓기, 200여㎥의 콩크리트치기는 얼핏 타산해도 반년이상은 실히 걸려야 할 량이였다.

하지만 부대군인들은 그러한 공사기일에 종지부를 찍었다. 즉시에 현장주변에서 수백㎥의 막돌채취작업이 시작되고 혼합물생산전투가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위훈속에 분초가 흐르던 그 나날 현장바닥에 시공할 마감자재가 미처 도착하지 못할 때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산으로 달려간 지휘관들과 자재가 도착하는족족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돌격전을 벌린 미더운 전투원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어가는 부대군인들에 의해 중앙동물원은 머지않아 사회주의문명을 노래하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될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위대한 사랑속에 성장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1년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뜻깊은 10월을 맞이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터에 모시였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다.

1년전 공장을 찾으시여 생산문제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조건부터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그 사랑에 목이 메여 눈물로 천필을 적신 이들이였다.

세상에 둘도 없을 궁궐같은 합숙이 일떠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련이어 받아안으며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렸다.

보답의 열풍이 공장의 그 어느 일터에나 차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1돐을 맞으며 계획완수자 328명 배출!

이중에서 4년분, 3년분, 2년분계획완수자가 각각 2명, 3명, 29명!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볼 때 계획완수자가 53명이나 더 늘어난셈이다. 이 계획완수자들가운데 80%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속에 복을 누리고있는 합숙생들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공장로동계급의 보답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알수 있다.

직장별, 교대별, 기대공별사회주의경쟁속에 다기대운동선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한명희동무와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김영심동무가 자기 정량의 3배에 달하는 직기를 맡아 충정의 순회길을 달리고달리였다.

앉으나서나 실잇기련습으로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나어린 기대공들은 물었다.

《다기대를 맡아보는 기능공들도 실잇기련습을 계속해야 하나요?》

그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다.

《아직 멀었어.》

하루에도 수십리의 순회길을 달리며 천폭포를 쏟고 또 쏟아도 성차지 않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힘은 무엇이였던가. 사랑의 힘이였다.

공장안의 모든 기대공들이 이런 불같은 열정을 안고 기대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한명희, 김영심동무들이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4년분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3년분, 2년분,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련속 배출되였다.

직장별사회주의경쟁도 치렬했다.

방적사부문에서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권사직장과 방적종합직장 2정방직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1등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승벽을 부리였다.

제직부문에서도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과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이 제일 앞장에서 시간을 다투는 실적이 현장방송으로 련속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경쟁은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였다. 서로 돕고 이끌어가는 집단주의기풍이 발휘된 경쟁의 나날은 이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다시한번 성장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어느날 앞서달리던 견방종합직장 4직포직장을 누르고 1등의 실적을 기록하던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에서 4직포직장으로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나타났다.

4직포직장에서 설비고장으로 멎어선 기대에 필요한 부속품이 없어 애를 먹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이들은 그냥 강건너 불보듯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들은 이날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도 풀어주고 설비의 동음을 울리고서야 자리를 떴다.

직장이 직장을 돕고 교대가 교대를 도우며 오랜 기대공이 나어린 신입기대공들을 도와 헌신하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는 그 어느 일터에서나 꽃펴났다.

공장일군들이 날로 더욱 뜨겁게 타번지는 경쟁열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선전공세를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그중에서도 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될 때마다 그들의 고향과 부모들의 직장, 모교로 편지를 보내는 정치사업은 큰 감화력을 나타냈다.

이런 훌륭한 자식과 제자를 키운 부모들과 선생님들을 높이 평가해달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혁신자들의 고향과 마을, 그들의 부모들이 일하는 직장과 모교에서 뜨겁게 울려나왔다.

승호군의 어느 한 중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 다음번 영웅은 누가 될것인가?》라는 란에 혁신자의 사진과 함께 보낸 편지가 나붙었다.

난데없이 직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딸의 혁신적인 소식이 담긴 편지가 랑독되고 요란한 박수갈채속에 전해질 때 혁신자의 아버지는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공장당조직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혁신자들의 고향에서, 모교에서 련속 편지가 날아왔다.

제자의 소식에 너무도 감격하여 한 스승은 학교를 대표하여 편지를 보냈다.

《학교의 명예를 떨친 남수향동무를 축하한다. 앞으로 꼭 영웅이 되기 바란다.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방직공이 되여 학교에서 뜨겁게 상봉하자!》

어떤 부모는 편지에 이런 글을 적어보냈다.

《자식이 부모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였다. 장하다. 몸을 잘 돌보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 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해라. 너를 믿는다!》

이렇게 공장과 고향, 공장과 부모, 공장과 모교사이에 오가는 편지내용은 모든 공장종업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누구나 혁신자대렬에 들어서기 위하여, 부모앞에, 자식앞에,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앞에 떳떳하기 위하여 기대를 떠나지 못하고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공장일군들이 종업원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통이 큰 일판을 전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아오시였던 1년전 그날 로동자들의 생활문제를 어떤 관점과 립장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이들이기에 모든 사색과 실천은 오직 종업원들의 생활향상과 잇닿아있었다.

온실을 하나 일떠세우고 축산기지를 하나 꾸려도 실지 종업원들이 덕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해 일군들은 발이 닳도록 뛰고 뛰였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의 수요능력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진행되고있는 수백㎡짜리 덩지큰 온실이 두개나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버섯기지를 새로 일떠세운데 이어 축산기지의 능력도 확장하고있다. 오리, 닭우리를 새로 확장하고 여기에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단백먹이서식장도 더 꾸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관철해나가고있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속에 성장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이들이다.

위대한 그 사랑을 한가슴에 안고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이 시각도 조국의 전진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애국의 길, 기적창조의 큰걸음을 힘있게 내짚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 문천시에서

### 가을남새농사에 힘을 넣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문천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남새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착실히 잘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생산을 늘여야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식량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가을남새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가을남새의 생육조건에 맞게 김매기와 거름주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협동농장들에서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남새밭에 물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관수체계를 바로세우고 앞선 비배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남새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남창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가을남새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이곳 농장원들은 시의 주민세대들에 더 많은 남새를 생산보장할 열의를 안고 이른아침부터 포전으로 달려나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뜨락또르와 부림소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후치질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밭머리는 물론 포전의 구석구석까지 질적으로 김을 매고있다.

고암, 석전협동농장의 일군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남새농사를 알심있게 짓고있다.

특히 이곳 농장들에서는 올해 남새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남새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거름주기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룡탄, 룡정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김매기와 거름주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면서 남새포전들에 물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병충해를 미리막도록 예찰예보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남새들이 충하없이 잘 자라게 품들여 가꾸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 모두다 선군시대 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에 앞장선 기수

###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신의주마이싱공장 마이싱직장 직장장 박사 장영화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시대의 우리 일군들은 높은 실력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깊이 연구하며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 혁신적안목에서 보고 대담한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대담한 실천으로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면서 사업을 참신하게, 활력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소문없던 신의주마이싱공장이 최근년간 온 나라에 이름떨치고 있다.

연 5년째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

여러명의 학위소유자 배출!

방방곡곡의 관심을 모으며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가는 공장의 앞장에 한 녀성직장장이 서있다.

보통로동자나 다름없는 수수한 모습이지만 그가 맡고있는 직장현장을 돌아보면 그의 높은 안목과 드센 손탁, 세심한 일솜씨를 알수 있다.

직장장으로 일해온 지난 9년간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직장을 새 세기맞이 나는 일터로 전변시키고 공장적인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의 기치를 앞장에서 높이 들고나가고있는 장영화동무,

직장을 전국적인 모범단위로 만들고 9건의 국가발명권을 받았으며 70여건의 창의고안을 완성한 녀성박사직장장의 높은 사업실적은 과연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

## 당앞에 책임진 혁명초소

2009년 새해공동사설에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이 장영화동무의 심장속에는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다.

2009년 정초 새해공동사설을 처음 받아안았을 때 그는 가슴이 세차게 높뛰였다.

신의주마이싱공장이 최고생산기록을 세운것은 30년전이였다. 그후 고난의 행군시기 원료와 자재부족으로 생산은 급격한 하강선을 긋다가 새 세기에 들어와서야 좀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런 형편에서 당장 30년전에 세운 최고생산기록을 돌파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미 세운 계획이 매우 낮을뿐더러 원료자재도 의연히 부족하여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나 어렵다고 하여 당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당정책은 누가 집행하겠는가.)

굳은 결심을 품은 장영화동무는 공장당조직에 올해공동사설에 밝혀진대로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할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공장종업원들속에서 많은 론의를 불러일으켰다. 현 상태에서 너무 지나친 욕망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영화동무의 제기를 받고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공장일군인 김춘길동무였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그 역시 최고생산수준돌파문제를 놓고 고심하고있었던것이다. 어떻게든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집행하여야 하겠는데 공장의 현 실태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김춘길동무는 장영화동무와 여러 현장기술자들을 만나 그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때 장영화동무는 말하였다.

《당에서 우리를 믿고 한개 단위를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하나 당앞에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도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김춘길동무는 소박하나 진지한 빛이 어린 장영화동무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무엇인가 그들먹이 차오르며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을 느끼였다.

오랜 기간 한공장, 한직장에서 줄곧 일해오면서 언제 한번 자기에게 더 알맞고 더 좋은 일터가 없는가 하여 여기저기 휘둘러본적이 없는 장영화동무였다.

마이싱직장 공정기사,

그것이 바로 함흥약학대학에서 항생소공학을 전공한 장영화동무에게 맡겨진 첫 직무이다.

그 직무수행을 위해 정다운 집과 부모형제가 있는 함흥시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을 때 제대군관인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당이 부르는데로 가거라.》

그것이 애지중지 정을 쏟던 딸의 앞길에 소중히 얹은 아버지의 축복이였다. 그것은 단지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삶의 참다운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실지체험으로 깨달은 전세대의 뜻깊은 당부이기도 하였다.

공장에 당도한 장영화동무는 자기가 일하게 될 직장을 돌아보았다. 거대한 발효탕크들이 듬직하게 자리잡은 생산현장은 가뜩이나 부푼 애젊은 대학졸업생처녀의 가슴을 쿵쿵 뛰게 하였다.

(여기가 나의 일터, 나의 혁명초소이다.)

직장의 생산일지들과 공정설계도면들에 《공정기사 장영화》라는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그때마다 장영화동무는 야릇한 흥분과 자부심을 안고 멋지게 수표하군 하였다. 그러다가 차츰 서슴어졌다. 잉크로 새기는 단순한 수표가 아님을, 직장의 생산공정을 공장앞에, 나아가서 당과 조국앞에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보다 책임적인 수표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던것이다.

(내가 직장의 한 부문을 책임질만큼 준비되여있는가.)

실력문제라면 은근히 자부해온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 그는 스스로 많은 학습과제를 자기의 생활에 덧놓았다. 실지 책임지자고 보니 알아야 할것, 배워야 할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공장합숙 2층 5호실, 온밤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방을 두고 야간교대작업에 나온 종업원들은 《우리 공장 등대》라고 불렀다. 공장공업시험소의 기사들은 때없이 질문거리를 안고 달려오는 처녀공정기사 장영화동무에게 물음박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피타게 쌓은 높은 실력으로 그는 직장의 공정기사 겸 작업반장으로 일한 20여년간 단 한건의 설비사고, 공정사고도 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에 힘을 넣은 그는 마이싱결정화공정에 새로운 응결침전제를 도입하여 생산실수률을 86%로부터 90%로 올리였으며 수입에 의거하던 자재를 자체로 만들어내는 등 수십건의 창의고안을 성공시킴으로써 제품생산계획을 최상의 수준에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시집갈 나이가 되자 함흥시에서 친지들이 좋은 대상을 권고해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데려다 선을 보이겠다면서 먼길을 달려오기도 하였지만 장영화동무는 한번 정한 일터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였다.

일터에 대한 사랑,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한생토록 책임지겠다는 열망을 안고 그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제대군인청년과 한가정을 이루었다.

몇해전 거의나 주저앉았던 직장을 맡아안게 되였을 때에도 그는 당의 믿음에 실적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녀성들이 대부분인 직장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10층에 달하는 높다란 생산건물의 안팎을 개건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생산과 건설을 함께 밀고나가면서 생산도 추켜세우고 무균화, 무진화의 원칙에 맞게 작업환경도 일신시켜나가는 그의 대담하고 이악한 일본새에 모두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당에서 이 직장을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늘 하던 이 말이 김춘길동무의 뇌리를 치며 다시 울려왔다.

당앞에, 혁명임무앞에 언제나 책임적인 장영화직장장과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마이싱직장 종업원들을 굳게 믿고 공장에서는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에로 모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 그가 받은 박사학위

장영화동무는 지난 3월에 약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사실 이것은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자신조차 생각 못한 일이다. 꼭두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직장에 나와 살다싶이 하고 그 많은 시간을 사무실보다도 생산현장에서 맴돌아야 하는 직장장이 언제 연구사업을 하고 학위론문을 쓸 겨를이 있겠는가.

하지만 장영화동무는 당의 품속에서 전문분야의 기술을 배운 대학졸업생이라는 자각을 늘 가슴깊이 품고있었다.

(나도 당에서 키워낸 지식인대군의 한사람이다. 우리 지식인들이 훌륭한 기술발명을 한가지씩만 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는 얼마나 부강하고 높이 솟구치겠는가. 나도 내 몫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는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보고 그대로 스쳐지나지 못하였으며 공정기사시절에 많은 기술혁신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새 기술도입은 그의 몸에 관습처럼 굳어져 그는 직장장이 된 후에도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를 결의해나선 첫해 장영화동무가 내세운 담보도 다름아닌 기술혁신이였다. 주어진 원료와 자재조건에서 생산을 늘이려면 제품실수률을 높여야 하였는데 그 해결방도는 다름아닌 과학기술에 의거하는것이였다.

장영화동무는 직장기술자들을 발동하는 한편 자신부터 창의고안에 적극 뛰여들었다. 생산을 이끌면서 그가 제일 안타까와한것은 높은 온도와 습도에 의한 발효탕크의 염균현상으로 장마철에는 생산을 멈추군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발효공업의 기존관례처럼 되여있었다. 하지만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하여서는 장마철에 생산을 멈추는 관례를 반드시 깨뜨려야만 하였다.

장마철에도 생산을 계속하자는 그의 이야기에 직장종업원들은 깜짝 놀랐다. 그거야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며.

그때 장영화동무는 단호히 말하였다.

《대비약, 대혁신의 시대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됩니다.》

염균현상의 원인을 해명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피타는 사색과 탐구끝에 그는 염균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총공기려과 방법을 끝끝내 찾아내였다.

년례적으로 생산을 못하던 장마철에 공정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것을 계기로 직장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났으며 누구나 기술의 힘에 의거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종업원들은 생산을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점들과 자기들이 찾아낸 극복방도를 스스럼없이 터놓기도 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장영화동무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될수 있어요. 꼭 될거예요.》라고 지지해주는 직장장, 자주 찾아와 자기의 지혜도 합쳐주는 그의 뜨거운 열정에 종업원들은 누구나 배심을 가지고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사업에 떨쳐나섰다.

2009년의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에만도 직장에서는 38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그 성과는 공장의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에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이 이룩한 성과를 보고받으시고 은정넘친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이것을 계기로 마이싱직장에서는 기술혁신이 하나의 풍조로 되였다. 그 앞장에는 여전히 장영화직장장이 서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마이싱생산을 늘이는데서 큰 몫을 담당한 직장의 한 작업반장이 학위론문을 쓰라는 권고를 받고 주저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곧 그 작업반장을 불렀다.

《반장동무, 왜 학위론문을 안 씁니까?》

《일도 바쁘고 가정부인인 제가 이 나이에 학위까지야 무슨… 직장장동무두 나보다 기술혁신한것이 더 많지만 안 쓰지 않았습니까.》

작업반장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하였다.

사실 자신을 놓고서는 학위에 대하여 그리 심각히 생각지 않았지만 작업반장의 경우를 당하게 되자 생각이 많아지였다. 그것은 결코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닌것이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관점과 립장문제였다.

그는 작업반장의 손을 꼭 잡았다.

《반장동무, 학위론문을 쓰세요. 저도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장영화동무는 학위론문준비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최첨단에로 힘차게 내달리는 시대와 발걸음을 맞추는 길이였다.

직장의 다른 기술자들과 종업원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나섰다.

학위론문을 쓰는 과정에 장영화동무와 종업원들은 련관공정과 부문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하였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하였다.

결정화공정에 분무건조기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정상화의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마이싱생산을 늘이는데서 지장을 받고있던 탈염, 중화공정을 대담하게 없애고 새로운 시약처리방법에 의한 불순물제거공정을 도입하여 제품의 질을 대폭 높이면서도 해마다 많은 량의 마이싱을 더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정제공정에서의 새로운 희석방법도입과 랭동건조법에 의한 마이싱균보관방법, 수분측정기제작과 정량공급장치개선, 열풍에 의한 상표잉크건조장치도입, 발효공정에 대한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절체계실현, 분포장공정의 자동흐름선체계완성,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결정화공정의 PLC체계를 완성하여 작업공정의 무인화실현 등 마이싱생산에서 첨단을 돌파해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직장장 장영화동무가 받은 박사학위!

그것은 탁상머리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생산실천에서 검증된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다.

올해 72살인 정제작업반의 조화미공정기사는 지금 박사학위론문준비를 하고있으며 직장의 많은 기술자들과 작업반장들도 학위론문집필에 달라붙었다.

생산과 기술혁신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호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장영화동무의 사업은 경제부문의 현장일군들이 적극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최첨단돌파전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실천으로 화답하자면 일군들부터 기술자가 되고 박사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장영화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찾게 되는 귀중한 진리이다.

당에서는 생산에서도 기술사업에서도 앞채를 메고 종업원들을 비약과 혁신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직장장 장영화동무에게 선군시대 공로자의 높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그 영광, 그 믿음을 가슴에 안고 그는 오늘도 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서있다.

글 본사기자 허명숙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장영화동무 (오른쪽에서 세번째)

---

우리 나라 홍은정선수

##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 영예의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홍은정선수가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녀자조마운동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3일부터 중국 남녕에서 시작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일본을 비롯한 7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얼마전에 있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존엄을 떨친 우리 나라 홍은정선수는 어머니조국에 또다시 승리의 보고를 드릴 일념안고 경기장에 나섰다.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당의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맹세가 홍은정선수의 얼굴에 어려있었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배짱을 지니고 그는 첫 시작달리기로부터 자신만만하게 주로를 누벼나갔다.

그는 최고급난도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15.599점으로 미국선수들을 누르고 선수권을 쟁취하였다. 수많은 관람자들이 홍은정선수의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는 그의 가슴속에는 어머니조국에 또다시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리게 된 크나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국제경기들에서 련이어 전해지는 우리 선수들의 우승소식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고무를 주고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씨야련방

# 공동우표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외교관계설정 66돐에 즈음하여 공동우표 2종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등 여러 지역에서 살고있는 새들인 큰새매와 바다수리가 각각 그려져 있다.

두 나라사이의 세번째로 되는 공동우표발행은 조로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

## 조로외교관계설정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 연회 마련

조로외교관계설정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9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알렉싼드르 또르쉰 로씨야련방평의회 1부의장과 그리고리 로그비노브 외무성 순회대사 등 외무성, 련방평의회, 국가회의, 국방성, 경제발전성, 원동발전성, 농업성, 교육과학성, 로씨야철도주식회사, 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김형준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련방평의회 1부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래고도 공고한 친선과 선린의 뉴대로 이어진 로씨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오늘과 같이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두 나라가 66년전에 선택한 로선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고 있는것은 로조관계가 그 어떤 정치파동에도 끄떡없으며 보다 결실있는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최근 로조관계의 발전방향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확신한다. 로씨야는 앞으로도 호상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천적결과물을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고 평화와 번영을 안아올것을 충심으로 바란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

# 예술선동의 힘찬 북소리로 전력, 석탄전선을 추동

# 귀에 쏙쏙 들어가게, 심장이 쿵쿵 울리게

### 중앙예술선동사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는 나라의 대동력기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중앙예술선동사의 일군들과 중앙예술경제선전대원들이 생산현장의 실정에 맞게 적중한 수단과 방법으로 화선식경제선동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중앙예술선동사의 창작지도일군들은 창작가, 배우들을 생산현장에 파견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1선참호에 섰다는 자각을 안고 전력증산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전력생산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자면 기존의 틀을 깨고 보다 새롭게 화선식경제선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어떤 수단을 쓰며 어떤 방법으로 생산자대중의 심금을 울릴것인가?

여러가지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모두의 찬동을 받은것은 방송선전차의 효과적인 리용과 생산현장의 현실을 직접 보면서 그자리에서 선동문을 쓰고 노래들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경제선동을 보다 박력있게 진행하자는 안이였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즉시 작가들과 방송원, 성악가수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매 사람에게 알맞는 과제를 주었다.

그리하여 음향기재를 전개하고 이미전에 창작완성한 화술소품들과 노래들로 진행하던 지난 시기의 경제선동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중앙예술경제선전대원들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전력생산자들앞에 나서게 되였다.

작가들인 윤광호, 최금도동무들이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기보수직장, 열생산 1, 2직장, 타빈직장, 공무직장, 운탄직장 등을 돌아보면서 받아안은 충동을 그자리에서 직접 선동문에 담았고 추옥석동무가 그 선동문에 기초하여 격동적인 화술선동을 진행하였으며 뒤따라 김일유동무를 비롯한 배우들이 힘찬 노래포성으로 작업현장을 들었다놓았다.

작가들은 전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에서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해나선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심장의 열기를 감수하였고 한몸이 그대로 불붙는 석탄이 되여 화실에 날아들어서라도 강성국가건설의 밑거름이 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를 읽을수 있었다. 그것을 그대로 선동문에 옮겼으니 방송원의 가슴이 어찌 흥분으로 높뛰지 않으랴.

그 선동문에 자기의 격동된 심정까지 반영하여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는 그대로 전력증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우렁찬 나팔소리였고 뒤이어 울릴 힘찬 노래포성의 전주곡이였다.

당정책에 립각하여 들끓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창작한 선동문을 대중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고 그들의 심장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을 더 활활 타번지게 한 기동성있는 경제선동은 전력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중앙예술선동사의 일군들과 중앙예술경제선전대원들은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출 때 선동수단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선동형식도 다양하고 특색있게 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화선식경제선동을 더욱 참신하게 벌려나가기 위한 이들의 활동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

# 덕천지구에 타오른 증산의 불길

###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덕천지구의 탄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는데서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도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한몫 단단히 하였다.

삼지연악단을 비롯한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제남탄광 등 여러 탄광들에서 수만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수십회의 기동성있는 공연활동을 벌려 석탄생산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 노래포성에 생산실적으로 화답하자!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3청, 4청까지 노래를 불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 지원자들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

만수대예술단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탄부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노래, 로동생활의 랑만을 반영한 인상깊은 노래들을 불러주자 탄부들의 사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월봉탄광의 한 굴진소대장은 정말 새 힘이 솟는다, 저 노래들을 들으니 승리의 신심이 백배해진다, 만수대예술단의 노래포성에 석탄생산실적으로 화답하겠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공연이 끝난 후 저녁교대작업에서 소대는 두 발파를 해제껴 교대작업계획을 160%로 넘쳐 수행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이 경제선동활동을 하는 기간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실적은 이전에 비해 110%로 장성하였다.

## 공연은 끝났어도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활동이 끝나고 그들이 떠나간지도 시간이 퍼그나 흘렀지만 덕천지구의 석탄생산자들과 탄부가족들은 지금도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화제에 올리고있다.

형봉탄광의 한 탄부는 《김응삼배우가 부른 노래 〈후대들을 위하여〉의 구절구절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하여 량심껏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오늘의 석탄증산투쟁에서 보람찬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렵니다.》라고 말하였다.

월봉탄광의 한 탄부가족은 지금도 그들의 노래소리가 귀전에 쟁쟁하다고 하면서 《그 노래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습니까? 한g의 석탄이라도 허실되지 않게 우리 가족들이 모두 떨쳐나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덕성탄광의 문화회관 관장은 우리 문화회관이 개건된 후 관람군중이 그때처럼 많이 모여든적은 없었다, 공연관람열의가 얼마나 높았던지 정말 인상깊다, 그들이 계속 우리 탄광에 와서 노래포성을 울려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공연은 끝났어도 화선식경제선동이 남긴 여운은 이렇듯 크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혁명적랑만과 열정에 넘쳐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과 또다시 상봉할 그날을 기다리고있다.

본사기자

---

## 미술부문의 창작가들

# 기동성있는 직관선동

만수대창작사와 중앙미술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를 비롯한 미술부문의 창작가들이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풀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여러 탄광들에 나가 직관선동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직관선동은 직관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

2.8직동청년탄광에 달려나간 창작가들은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석탄증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기 위한 직관선동활동을 기동성있게 벌리였다.

창작가들은 여러곳에 있는 선전화와 속보판, 구호들을 새롭게 게시하여줌으로써 석탄생산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천성청년탄광에 달려나간 창작가들은 전투속보판과 함께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을 새맛이 나게 잘 형상하여 게시해주어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또한 창작가들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탄부들의 미더운 모습과 들끓는 탄광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미술작품창작을 위한 현지습작도 진행하였다.

령대탄광에 달려나간 창작가들도 여러가지 형식의 직관선동활동으로 탄부들의 마음속에 투쟁의 불을 세차게 지펴주었다.

혁신자초상소묘는 탄부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혁신자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싱글벙글 웃는 탄부들의 모습은 그대로 창작가들의 세련된 솜씨에 의해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졌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렇게 중앙의 능력있는 미술가들이 현지에 내려와 직관선동을 진행하여주니 탄광로동계급의 사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힘있는 선전화들과 구호들, 생동한 소묘작품들을 보며 모두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소묘작품이 사진보다 더 멋있다, 앞으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석탄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창작가들의 힘있는 직관선동에 무한히 고무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향미

#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들끓는다

## 체 육 절 을 맞 으 며

## 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킨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오늘은 체육절이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체육절을 맞으며 전국각지에서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위주로 하는 다채로운 체육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다. 체육절날의 벅찬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얼마전에 막을 내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잊지 못할 날과 날들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였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장에서 일으킨 환희로운 승전열풍과 더불어 온 나라에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는 전국의 12개 도(직할시)들에서 선발된 수많은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참가하여 자기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렬한 경기들을 진행하였다.

### 종전보다 커진 규모, 늘어난 경기종목

체육성 부국장 리치응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지난해의 전국도대항체육경기보다 규모가 더욱 커지고 경기종목수도 더 많아졌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평양시와 라선시가 참가함으로써 참가단위가 12개로 늘어났고 지난해의 전국도대항체육경기에 없었던 종목들이 포함된것을 비롯하여 경기종목수도 14개로 늘어났다.

녀자축구, 장애물극복달리기, 사격, 태권도, 그네뛰기, 윷놀이, 로라스케트종목들이 새로운 경기종목으로 선정되였으며 공안고이고어린이손목잡고달리기, 물고기코꿰고달리기와 같은 특색있는 유희경기종목들도 선정되여 더 이채를 띠게 되였다.

이처럼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종목들이 더 포함되고 유희경기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컸다.

### 준비사업으로 전국이 들끓었다

체육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대회상징기발, 순회우승컵, 금소방울, 선전화 등을 훌륭히 완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전국적인 현상모집에 기초하여 연한 푸른색바탕에 우승컵과 륙상주로를 형상한 특색있는 상징마크가 새겨진 상징기발도안이 완성되였으며 체육경기가 진행되는 수도 평양의 여러곳에 상징기발들이 게양되고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와 관련한 선전화가 각지에 게시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각 도(직할시)의 책임일군들이 적극 앞장선 가운데 도처에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국장 한광호동무는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함경북도의 각 시, 군들에서 공장, 기업소별대항경기가 벌어졌고 거기서 선발된 선수들이 모여 선군절을 맞으며 시, 군대항경기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도를 대표하여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 참가할 선수선발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이 나날에 도의 그 어느곳이나 체육열풍으로 들끓었다고, 도, 시,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직접 한종목씩 맡아 선수선발로부터 훈련조건보장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함경북도만이 아니였다.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전승절과 선군절을 맞으며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 출전할 선수선발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국장 문동철동무는 평안북도에서는 부문별, 지역별경기에 앞서 시, 군당책임일군경기, 시, 군인민위원회책임일군경기가 먼저 진행되여 체육분위기가 더한층 고조되였다고, 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속에는 한가족성원도 있었고 한기관 종업원들도 있어 이번에 좋은 경기성적을 거두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뜻깊은 10월에 열리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자기 지역의 명예를 높이 떨칠 신심과 의지가 차넘치는 속에 각지에서는 그 준비사업에서부터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 높은 체육기술, 드세찬 응원열풍

라선시팀의 바줄당기기감독 윤금철동무는 자기 팀의 선수들이 수백kg의 중량물끌기, 수십t의 대형화물자동차를 10여명이 끌기를 비롯하여 강도높은 육체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착실히 한 결과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결승경기에까지 나설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들만이 아니다. 평양시를 대표하여 롱구경기에 참가한 박춘선동무를 비롯한 중앙정보통신국의 녀자롱구선수들은 30대, 40대의 가정부인들이지만 롱구장왕복달리기훈련, 하루 300번이상의 던져넣기훈련을 하면서 빈틈없는 준비를 한 결과 맞다드는 팀들을 모두 수십점차이로 이기였다.

이처럼 다양한 종목의 결승경기에 올라온 모든 팀들의 선수들이 훈련을 통하여 튼튼히 갖춘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한것으로 하여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분위기를 절정에 올려세울수 있었다.

하기에 뜻깊은 당창건기념일날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결승경기들을 본 수많은 관람자들은 강의한 정신력과 높은 체육기술을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전기간 각 도(직할시)의 응원단성원들은 응원도경기라는 관점에서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소도구를 리용하여 특색있고 열광적인 응원을 진행하였다.

특히 평양시응원단 성원들은 20개의 소도구를 리용하여 글자새기기, 노래와 춤을 배합한 기백넘치고 우아한 률동형상으로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평양시의 녀맹일군 김은희동무는 평양시응원단 성원들의 응원동작을 보고 다른 도의 응원단성원들이 그것을 참고하여 보다 새로와진 응원장면을 펼치는 일화까지 생겨났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자기 지역의 명예를 떨치기 위한 경쟁열풍은 경기장밖에서도 세차게 일어번져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종합 1등은 평양시, 2등은 강원도, 3등은 함경북도, 4등은 평안북도, 5등은 황해남도, 6등은 평안남도, 7등은 함경남도, 8등은 남포시, 9등은 라선시, 10등은 자강도, 11등은 황해북도, 12등은 량강도가 하였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책임일군들부터 체육열풍을 일으키는데 앞채를 메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의 전국도대항체육경기에서 종합 6등을 한데 비하여 올해의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는 2등으로 비약한 강원도의 성과가 주목을 끌었다. 일군들이 분발하여나서는것만큼 대중체육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것을 이 도의 성과가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 *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받아안은 그때로부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까지!

체육절을 맞으며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온 한해를 들끓게 하고있는 체육열풍에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당의 품속에서 키높이 성장한 미더운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무대에서 선군조선의 금메달열풍을 일으키고 온 나라 인민은 더욱 드세찬 대중체육열풍으로 화답해나선 내 조국의 이 격동적인 화폭속에 체육강국의 래일이 환희롭게 안겨온다.

우리 인민의 리상인 체육강국의 새 아침은 이렇게 밝아오고있다.

10월의 체육열풍은 체육강국의 래일을 소리쳐부르고있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10월의 환희를 더욱 분출시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것이며 그 기백, 그 기상으로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긍지높이 일떠세울것이다.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정순애

# 체육절에 비낀 숭고한 뜻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10월 두번째 일요일은 체육절이다.

체육절이 제정되게 된데는 광범한 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더욱 튼튼히 키우시기 위해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나라의 체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주체체육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체육을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한 체육발전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주체35(1946)년 10월 첫 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해방된 새 조선의 체육은 몇몇 개인선수들을 내세우기 위한 체육으로,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놀음거리로 될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뜻깊게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로 해방전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우리 인민의 체육적재능과 갈망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앞길을 환히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에는 인민체력검정제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주체38(1949)년에는 체육절까지 제정하도록 해주시였다.

그해 8월초 국가적인 중요한 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체육을 대중화하고 나라의 체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육절을 제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체육절은 매해 10월 두번째 일요일로 정할데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체육절은 이처럼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체육의 대중화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제정되게 되였다.

체육절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광범한 대중이 체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 체육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웠으며 이에 토대하여 체육인대렬이 더욱 늘어나고 나라의 체육기술도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올해의 체육절을 맞는 온 나라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어디서나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 이런 고결한 애국심이 공화국기를 빛내인다

## 2중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를 키워낸 룡남산체육단 레스링책임감독 인민체육인 리창종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리창종동무는 아시아 및 세계패권자를 비롯한 재능있는 레스링선수들을 키워낸 실력있고 로련한 레스링감독이다.

최근 5년동안에 그가 쌓은 성공의 탑은 참으로 자랑할만한것이다.

2009년 한해에만 하여도 그의 지도를 받으며 육체기술전술적능력을 튼튼히 다진 룡남산체육단의 조동혁선수가 타이에서 진행된 2009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레스링 60kg급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여 아시아패권자로 영예떨치였다. 뒤이어 단마르크에서 열렸던 2009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레스링 55kg급경기에서 같은 체육단의 양경일선수가 단연 우승하여 일약 세계패권자로 솟구쳐올랐다.

특히 양경일선수는 세계선수권을 보유한 이후에도 여러 국제레스링경기들에서 련이어 금메달을 쟁취하였을뿐아니라 올해의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빛내였다.

이러한 혁혁한 성과는 아시아패권자, 세계패권자들을 키워낼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완강하게 노력한 리창종동무의 불같은 열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선수들에 대한 교수훈련지도를 실속있게 벌려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레스링발전추세에 확고히 정통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어느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특히 당정책의 요구대로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고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기술과 전술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동의보감》까지 독파한것을 놓고서도 실력향상을 위한 그의 열정의 심도를 잘 엿볼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 양경일선수가 2중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로 이름떨치고 세계무대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빛내이도록 하는데 기여한 리창종동무의 성과의 비결을 단순히 높은 실력만으로는 다 설명할수 없다.

양경일선수가 우즈베끼스딴에서 열리게 되는 2014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완강한 훈련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훈련지도를 하느라 선수와 함께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있던 리창종동무가 갑자기 쓰러졌다. 지난해에도 애를 먹이던 병이 재발한것이였다.

하여 어느 한 중앙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된 리창종동무의 머리속에는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세계선수권대회때문이였다.

－여기서 주저앉을수 없다.

병원에서는 비록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오래동안 안정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리창종동무의 당적량심은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그 한초한초가 그에게는 열시간, 백시간맞잡이로, 피같이 느껴졌다. 조국의 금메달이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니 더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인민체육인의 영예며 높은 국가수훈도 안겨주고 세계적인 안목을 더욱 넓힐수 있도록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을 생각할수록 그 마음은 더했다. 리창종동무는 의료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나왔다.

뜻밖에 돌아온 책임감독을 보는 순간 양경일선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빨리 훈련을 하자고,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는 잠자지 않는다고 저력있게 하는 리창종동무의 말은 선수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이제 또 병이 재발하면 생명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리창종동무였지만 그 모든것을 각오하고 오직 훈련지도에 열중하였다. 체육단일군들이 안정해야 한다고 거듭 권고할 때에도 리창종동무는 괜찮다고 흔연히 웃음지으며 훈련장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말그대로 조국의 금메달을 위한 사생결단의 전투였다.

책임감독의 그 격동적인 모습은 양경일선수로 하여금 선군시대 체육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하고 애국의 정신력을 더욱 활화산같이 분출시키게 한 삶의 본보기와도 같았다.

리창종동무의 이런 불같은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양경일선수는 자기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높은 기술전술적능력을 튼튼히 다지였으며 마침내 2014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레스링 57kg급경기에서 우승하여 2중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로 위훈떨칠수 있었다.

* *

지난 9월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에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대학의 수많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늘어선 가운데 대학정문으로 2중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 양경일선수와 레스링책임감독 리창종동무가 들어섰다. 순간 온 대학이 떠나갈듯 터져오르는 우렁찬 축하의 함성, 대학의 자랑인 미더운 체육인들에게 안겨지는 축하의 꽃다발…

열렬한 축하의 꽃물결에 실려 양경일선수와 함께 절세위인들의 동상이 모셔진 곳으로 오르는 리창종동무의 가슴속에 삶의 긍지가 끝없이 샘솟아올랐다.

이런 고결한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가 누리에 더욱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오철룡

# 민족체육상식 몇가지

###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씨름

씨름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있고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체육종목의 하나이다.

삼국시기에 씨름이 널리 일반화되였으며 씨름을 잘하는 사람들을 력사라고 하였다.

씨름은 군인들은 물론 각계층 사람들속에서도 생산활동의 여가와 민속명절들을 계기로 자주 진행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고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는 씨름은 오늘 민족문화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 개화발전하고있다.

### 단합정신을 키워주는 바줄당기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체육경기를 하나 해도 단결력과 정신력을 높여주는 집단경기를 즐겨하였다.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해온 바줄당기기도 집단의 단결과 행동일치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민족체육종목으로서 단합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성격상특성을 잘 반영하고있다.

바줄당기기는 대체로 마을호상간에 진행되였는데 경기전에 매 마을들에서는 벼짚이나 칡으로 굵게 꼰 원줄에 약 1m 간격으로 수많은 작은 줄들을 단육중한 바줄을 준비하여야 하였다. 정신력과 단결력이 부족하고 매 선수들의 힘과 호흡, 자세가 일치되지 못할 때에는 경기에서 이길수 없었다. 이렇듯 바줄당기기에는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기질이 깃들어있다.

### 누구나가 좋아하는 윷놀이

윷놀이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온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윷놀이는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대중오락이다.

윷놀이는 네개의 윷가락을 던져 엎어지거나 젖혀지는 결과를 가지고 말판에 말을 쓰면서 겨루는 놀이로서 척사라고도 불렀다.

옛날부터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들은 윷놀이에서 윷이 나오면 말을 효과적으로 놓으면서 다양한 전술을 리용하여 놀이상황을 역전시키는 등 윷놀이를 재미있게 하였다.

윷놀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정서가 그대로 어려있으며 누구나 즐겨하는 놀이로서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 체육단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

## 홍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수 있으며 체육선수들의 긍지와 영예감도 높일수 있고 체육기술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최근년간에 홍남비료련합기업소체육단의 면모가 몰라보게 일신되였다.

아담하게 꾸려진 체육단건물이며 특색있게 꾸려진 실내활쏘기훈련장, 권투훈련장, 선수들의 휴계실 등 체육단 그 어느곳이나 우리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와 만난 체육단의 한 일군은 체육단이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데는 체육단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준 기업소일군들의 열정적인 일본새가 깔려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지난해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울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기업소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당에서는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울것을 구상하고있는데 우리는 체육단사업을 몇번 도와주는것으로 그쳤지 기업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어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체육단건물이 협소한것으로 하여 선수들이 훈련이나 생활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일군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깊이 돌이켜보았다.

그리하여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체육단사업을 기업소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어주기 위한 협의회가 열리였다.

협의회에서 기업소의 책임일군은 이렇게 절절히 호소하였다.

《체육단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밀어줍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우리 기업소체육단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잊지 맙시다.》

체육단을 조건이 좋은 다른 건물로 옮겨주는 문제, 감독,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문제, 필요한 체육기자재와 과학설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등이 토론되였으며 구체적인 분공이 조직되였다.

그후 기업소에서는 겨울철훈련전까지 새로 옮긴 체육단건물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졌다.

하여 몇달 안되는 기간에 실내활쏘기훈련장을 비롯한 여러 훈련장들과 과학실, 선수들의 휴계실이 훌륭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말그대로 체육단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 온 기업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비료생산을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로드바쁜 속에서도 감독, 선수들의 경기와 훈련보장에 이바지할수 있는 륜전기재와 훈련기재, 후방물자를 해결해준것을 비롯하여 정상적으로 체육단사업을 료해하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밀어주었다.

이렇듯 조국의 금메달을 함께 안아올리는 심정으로 떨쳐나선 기업소일군들의 불같은 열정에 고무된 이곳 체육단선수들은 올해에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륙상경기에서 우승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주령봉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 다음주에 진행될 공화국선수권대회 종목별 1급경기들

다음주에 공화국선수권대회 종목별 1급경기들이 계속 진행된다.

축구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3일 남자 봉화산:판모봉
선 봉:소백수
녀자 봉화산:리명수
14일 남자 기관차:홰 불
묘향산:평 양
녀자 묘향산:청천강
15일 남자 4.25:경공업성
압록강:판모봉
녀자 압록강:소백수
16일 남자 월미도:소백수
봉화산:홰 불
녀자 내고향:월미도
평 양:신흥산
17일 남자 선 봉:평 양
기관차:묘향산
녀자 갈매기:리명수
4.25:봉화산
18일 남자 4.25:판모봉
경공업성:소백수
녀자 청천강:월미도
묘향산:소백수

남자경기는 김일성경기장에서 오후에 진행되며 녀자경기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산축구경기장에서, 16일부터는 김일성경기장에서 각각 오전에 벌어지게 된다.

한편 교예체조 남, 녀경기가 13일부터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바드민톤, 유술 남, 녀경기는 14일부터 청춘거리 바드민톤경기관과 중경기관에서 있게 된다.

물에뛰여들기, 활쏘기 남, 녀경기는 15일부터 창광원 수영관과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분쟁문제

나라들사이, 정치세력들사이, 종족 및 교파들사이의 분쟁이 세계를 소란스럽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여있던것이 이제는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있다.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과 종족 및 교파들사이의 심각한 모순과 대립이 물리적충돌로 번져져 숱한 사상자들과 피난민들이 발생하고있다. 여기에 외부세력들까지 개입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있다.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경제가 황폐화되고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분쟁의 불길을 몰아올수 있는 조건의 하나로 되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인류의 앞날을 위해 분쟁문제해결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는 세계곳곳에서 벌어지고있는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기띤 론의들이 진행되고 일련의 대책들이 강구되고있다. 그러나 분쟁의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도를 찾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분쟁들은 하루이틀에 쌓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사건으로 발생한것이 아니다. 그 대부분은 뿌리깊은 력사적배경을 가지고있다.

아프리카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지역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분할통치의 후과로 같은 민족 및 종족이 갈라져 서로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국경분쟁과 민족 및 종족들사이의 충돌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분쟁들도 이와 류사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세계는 이러한 력사적배경을 안고있는 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년동안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실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현재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대부분의 분쟁들은 외세의 간섭과 전횡때문에 일어난것들이다.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분쟁도 그렇고 그밖의 다른 지역의 분쟁들도 같다. 분쟁의 뿌리를 들어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분쟁의 근본원인을 무시하고 일시적인 타협과 흥정으로 이루어진 협정은 공고하지 못하며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만다.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더욱 확대되는 분쟁의 근본원인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교활하게 책동하는데 있다. 그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안에 있는 여러 정치세력들과 종족 및 교파들사이에 쐐기를 박아 분렬리간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있다.

그 수법은 다양하다. 과거력사를 들추어내여 민족분쟁과 알륵의 불씨를 찾아내고는 그것을 가지고 소수민족에 대한 다수민족의 지배에 대해 떠들면서 민족들사이에 쐐기를 박고있다. 그런가 하면 분쟁문제들에 끼여들어 한쪽편만 들면서 붙는 불에 키질하는 식으로 놀아대고있다. 어느 한 세력에게는 지지와 원조를 주고 다른 세력에게는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대립과 분쟁을 격화시키는 방법도 쓰고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구실로 내정간섭을 일삼고있다. 나중에는 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로골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하고있다.

중동의 어느 한 나라에서 몇해동안 지속되고있는 분쟁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은 이 나라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는 그들을 《민주주의세력》으로 둔갑시키고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무기와 자금까지 대주었다.

이 나라의 분쟁은 내전으로까지 번져졌다. 미국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있다. 미국의 행위는 분쟁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막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분쟁문제를 저들의 리속을 채우는데 악용하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의 책동을 각성있게 대하지 않고 그것을 저지시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후과가 차례진다는것이 분쟁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분쟁당사자들이 외세의 개입을 배격하고 서로 마주앉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자기 식의 옳은 원칙과 방법론을 찾을 때만이 분쟁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분쟁들은 그 력사적배경과 원인이 서로 다르다. 그런것만큼 세계적인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자막대기란 있을수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실정과 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내는것이다. 아무리 계속 마주앉아도 일방이 리기적목적만을 앞세우면서 타방에게 자기의 요구조건만을 내리먹이려 해서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수 없다.

분쟁문제해결에 외세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난 시기 아프리카나 다른 여러 지역들에서 외세의 중재나 간섭으로 일시적인 정화가 실시된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사자들사이의 솔직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실속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말그대로 일시적인것에 불과한것이였지 완전한 평화는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분쟁으로 재난을 겪고있는 나라들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도와 옳바른 원칙을 합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것이다.

분쟁문제해결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처방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처방이라는것은 순수 저들을 평화옹호자로 분칠하고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은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나라들에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한 처방을 내리고 그것을 받아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떠들며 저들의 정치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는 그것만이 분쟁세력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극복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되였다. 미국의 처방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각양각색의 세력들이 생겨나 정치적복잡성이 조성되고 대결이 더욱 심화되였다. 한 나라안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공존하여오던 여러 종족 및 교파들사이의 관계도 서로가 더는 용납할수 없는 적대관계로 되였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금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계속되는 정치적소요와 물리적충돌, 그로 하여 초래되는 사회적무질서와 경제의 파탄 등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처방을 받아들이면 분쟁이 더욱 악화되고 파국적인 후과가 차례진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확대되고있는데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데도 책임이 있다.

분쟁문제들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저들의 리속을 차리고있는 미국의 행동이 잘못된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는가 하면 특정한 세력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하고 무력행사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쪽당사자의 목소리만 듣고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나라들의 분쟁을 조장격화시켜 저들의 리속을 챙기려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의 책동은 계속되고있다.

자주와 진보를 바라는 나라들은 지나온 분쟁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을 총화해보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인류문명발전의 견지에서 해결해나감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리 학 남

# 정세파국을 몰아오는 도발의 장본인

남조선의 인간쓰레기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끝끝내 벌려놓았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또다시 엄중한 위기국면에 처하게 되였다. 이번 반공화국도발의 주모자는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앞에서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는 북남관계가 다시 파국에 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남조선당국에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을 당장 중지시킬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들은 삐라살포행위를 저지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비호조장시켰다. 그들은 그 무슨 《자률적판단》이니,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 하였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잔꾀라고 해야 할것이다.

묻건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살포망동이 파연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의 자발적인 놀음인가.

그것이 우리의 면전에서 벌리는 극악한 심리모략전의 일환으로서 쌍방간에 엄중한 군사적충돌까지 유발시킬수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대화상대방을 존중하고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약속은 신의로 지켜야 하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싶이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신뢰는커녕 경악과 분노만을 자아내게 한다.

남조선당국이 《자률적판단》이니, 《법적근거》니 뭐니 한것은 사실상 삐라살포망동을 묵인하겠으니 마음놓고 강행해도 된다는 일종의 암시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인간추물들이 어떻게 군사분계선일대에 뻐젓이 나타나 삐라살포놀음을 강행할수 있겠는가.

이번 삐라살포당시 괴뢰당국은 현장에 이전보다 더 많은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이것이 인간쓰레기들의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남조선에서 통일애국단체들과 민주인사들지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때없이 감옥에 끌려가고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는것은 그 어떤 법적타당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당국의 비위에 거슬리게 행동하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그가 설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올가미에 걸려 박해를 당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그 무슨 《법적근거》니 뭐니 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변명은 통할수 없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삐라살포행위도 철두철미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각본에 따른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인간추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로 극구 떠밀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송장무리들은 구차한 생을 연장하기 위해 누구도 나서기 저어하는 《삐라장사》에 그처럼 기승을 부리며 팔걷고나서는것이다.

인간추물들을 반공화국도발에로 집요하게 부추기면서도 아닌보살하고있는 괴뢰당국의 유치한 처사야말로 내외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란동의 주범, 배후조종자는 미국과 괴뢰패당이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불순한 망상에 사로잡혀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도발에 열을 올리는자들에게서 북남관계개선이나 결실있는 대화를 어떻게 기대할수 있겠는가.

괴뢰패당의 처사로 하여 북남관계가 파국에 빠지게 된것은 물론 예정된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도 물거품으로 된것이나 다름없게 되였다.

이번 사태는 반공화국삐라살포도발이 북남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초미의 문제로 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추물들을 내세워 그 누구를 어째보려 하다가는 도리여 그들자신이 큰코를 다치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외여론은 북남관계개선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최 철 순

# 조로친선의 장구한 력사를 되새기며

우리 나라가 이전 쏘련(오늘의 로씨야련방)과 외교관계를 맺은 때로부터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48년 10월 12일 두 나라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됨으로써 조로친선의 력사적장이 열리게 되였다.

지금 두 나라 인민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동해온 장구한 나날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고있다.

조로친선관계는 실로 깊고도 오랜 력사적뿌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이 진정한 인민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 로씨야는 제일먼저 우리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복잡한 환경속에서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을 헤쳐야 했던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두 나라는 자주성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호상 긴밀히 협조하면서 력사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헤쳐왔다.

그 과정에 1949년 3월 17일 두 나라사이에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첫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955년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1960년에는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이, 1961년에는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각각 체결되였다. 1970년에는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로친선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2000년 2월 우리 나라와 로씨야련방사이에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2001년과 2002년, 2011년에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심으로써 두 나라 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현시기 조로관계는 커다란 생명력을 안고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밀접해지고있다.

날로 좋게 발전하는 조로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익하다.

지금 로씨야련방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하에서도 자주성을 고수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적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서로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관계발전을 추동해나가는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로친선의 력사와 전통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 렬강들의 분렬주의책동 단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3일 한 서한에서 렬강들의 분렬주의책동을 단죄하였다. 서한은 교활한 적들은 유태복고주의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슬람교도들사이에 분쟁을 야기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모든 이슬람교도들은 적들의 분렬책동에 대처하여 의견상이를 해소하고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서한은 강조하였다.

## 나토의 확대를 비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9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확대에 대해 비난하였다. 그는 나토의 확대는 실책이고 도발이며 의무위반으로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통일적인 안전보장질서수립을 위한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란의 평화적핵개발 지지

니까라과민족회의 의장이 4일 이란국회대표단과의 상봉석상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은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를 개발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니까라과정부는 이를 적극 옹호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중동지역에 대한 렬강들의 전쟁도발정책을 비난하였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발광적인
# 침략전쟁준비책동

### 신형무장장비개발책동

미국이 침략전쟁수행에 써먹을 신형무장장비개발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UPI통신은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특수작전에 리용할 8대의 신형직승기들중 첫 직승기가 보잉회사로부터 미군에 납입되였다고 전하였다.

《CH—47》직승기의 개량형인 《MH—47G》는 수자식비행조종체계를 갖추고있다 한다. 미군은 다음해까지 나머지분량을 전부 넘겨받게 된다.

### 해군무력강화책동

해외침략전쟁열에 들뜬 미해군이 최근 군수독점체인 레이디온회사로부터 《토마호크 블로크4》순항미싸일들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미해군관계자는 이 순항미싸일들이 전략적의의가 있는 대상물들과 반항공종합체계들을 파괴할수 있다고 떠벌이였다.

### 요격미싸일시험 감행

이스라엘이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최근 팔마힘공군기지에서 《애로우—2》요격미싸일시험을 감행하였다.

얼마전 이스라엘국방성은 개량된 요격탄도미싸일체계를 시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층권내에서 미싸일을 요격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된 이 요격미싸일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개발되였으며 2000년에 이스라엘공군에 실전배치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요격미싸일시험소동은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있다.

### 드러난 반꾸바공격계획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9월 30일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전 미국정부가 아바나공습을 비롯하여 꾸바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계획하였던 사실을 폭로하였다.

신문은 최근에 비밀해제된 문건내용을 인용하면서 1976년 당시 미국무장관 키신저를 비롯한 정부관리들이 비밀회의를 열고 꾸바의 항구들과 군사시설들을 공격하며 관따나모만에 있는 미해군기지에 해병대들을 파견할데 관한 계획들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계속되는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 미군이 《반테로》의 구실밑에 파키스탄정부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령토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9월 28일 미군무인기가 남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여 죄없는 2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5일에도 미군무인기는 남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결과 5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공습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6일 미군은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또 들이밀어 미싸일공격을 가하였다. 결과 8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당하였다.

7일에도 미군무인기는 북부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결과 4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을 반대하는 일본인들

#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시도 배격

— 이란동원군 사령관이 1일 한 의식에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미국이 테로조직을 《소탕》한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딴 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이 공격하려는 테로조직은 바로 미국과 서방에 의해 생겨났으며 미국은 이 테로조직을 리용하여 이슬람교도들사이에 불신을 조성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적주둔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한편 이란국가복리리사회 비서 모흐센 레자이가 최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모략책동을 폭로하였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테로그루빠를 소탕한다는 미명하에 국제적인 련합무력을 형성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이 지역에서 저들의 주둔무력을 확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은 지역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부전복을 꾀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슬로베니아외무상 칼 에르쟈베쯔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에 합세하지 않을 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슬로베니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로》군사작전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한 성원국으로서 국제법의 테두리안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테로와의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 총비서 쉐이크 하싼 나스랄라흐가 최근 한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을 배격하는 립장을 밝혔다. 그는 《반테로》의 간판밑에 그 무슨 국제적인 련합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중동지역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레바논은 미국의 《반테로련합》에 합세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미국의 비극은 계속되고있다

미국의 비극은 무엇인가.

이미 1925년에 미국의 어느 한 작가는 《미국의 비극》이라는 소설을 창작하여 미국사회제도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소설에서 한 청년의 성격형성과정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사회환경을 사실주의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보임으로써 퇴폐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의 영향밑에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는 수많은 청년들의 운명, 이것이 미국의 비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설이 창작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만일 그때의 작가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아마도 소설의 련속편을 수십편도 더 쓰고 남았을것이다.

미국사회에서 심각한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9월 30일 이른아침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학생이 말다툼도중 자기의 학급동무에게 여러발의 사격을 가하였던것이다. 이로 하여 수업이 취소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물론 이 사건은 미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대규모총기란사사건들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라고 할수 없다. 하지만 명백히 알수 있는것은 나어린 학생들까지 총을 휘두를만큼 미국사회가 인권페허지대라는것이다.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는 고칠수 없는 하나의 《악성류행병》이다. 미국에서 살인행위의 69.3%, 강도행위의 41%가 총기에 의해 저질러지고있다. 해마다 10만명이상이 총기류범죄로 피해를 입고있다.

총기류범죄가 류행으로 되고있는 미국사회에서 태여나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패륜패덕에 물젖고 폭력과 살인에 적응하며 자란 철부지아이들속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나타나는것은 결코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미국의 ABC방송과 《워싱톤 포스트》는 청소년들속에서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는 총기류범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개별적인물의 소행이라기보다 사회에 존재해있는 광범위한 난문제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가혹한 현실앞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도 꿈도 무참히 유린당한 청소년들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것은 어쩔수 없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이다.

지난해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한 청년이 대낮에 교회당에 뛰여들어 무턱대고 칼부림을 하던 끝에 4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는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 23일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2살 난 청년이 6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이 밝힌데 의하면 범인은 총기란사극을 벌리기에 앞서 녀성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면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네트에 올렸다.

렵기적이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범죄의 당사자야말로 부패한 미국사회제도가 낳은 사생아, 희비극의 체현자이라고 할수 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지배하는 미국사회제도가 온갖 범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근본요인이며 근로대중을 무지와 몽매, 방탕과 범죄의 길로 떠미는 집권계층과 부르죠아지들이 주모자, 장본인이다.

열띤 무기판매와 각종 범죄의 성행, 폭력적인 내용의 영화, 오락, 출판물 등의 대대적인 류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해치고 범죄에로 몰아가고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총에 맞아 애매하게 죽을지 모르는 미국인들은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다.

2012년 12월 미국 코넥티커트주의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참혹한 총기란사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에서 총기구입을 위한 신원조회가 급증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또 2013년 1월 오바마가 총기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는 총기구매가 어려워진다는 불안으로부터 총기구매자가 급격히 늘어난 사실도 있다.

미국의 수많은 무기업체들은 무기생산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정객들을 후원하면서 총기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있다. 실태가 이러하니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를 막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지난 6월 오바마자신이 미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는소리를 했겠는가.

그는 재임기간중 가장 큰 좌절은 미국사회가 총기류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맥함을 한탄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치며 통곡한다 한들 그 누구도 미국의 비극을 끝장낼수 없다.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을 쓴 작가가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했겠는가.

필경 이렇게 말했을것이다.

미국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그때 가서 미국의 비극도 끝이 난다고.

본사기자 리 철 혁

### 집권자의 인기 최저수준

최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방송이 발표한 전국적인 공동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속에서 현 집권자의 인기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많은 응답자들이 집권자가 주도하는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 불신을 표시하였다 한다.

### 반 전 시 위

뛰르끼예의 디야르바끼르주에서 2일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4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국회가 이웃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작전에 무력을 동원시킬것을 승인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날 반전시위는 전국의 10여개 도시들에서 진행되였다. 경찰들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아대며 탄압에 나섰다고 한다.

### 에볼라환자 계속 발생

—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에볼라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10월초현재 기네, 리베리아, 나이제리아 등 지역나라들에서 7 478명의 에볼라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3 43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 에스빠냐에서 에볼라비루스가 전파되여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6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마드리드에서 에볼라환자를 담당하였던 간호원에게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 일본에서

일본의 오끼나와섬과 규슈섬을 비롯한 서남부지역들에 5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약 1만 8 500세대의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스리랑카에서 가뭄피해

태풍은 점차 나라의 중부지역으로 이동하여 도꾜에서 수백편의 비행기운행이 취소되고 온따께산에서 화산분출에 의한 행방불명자구조사업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한편 일본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있다. 서남부지역에 이어 중부지역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6일 야마나시, 가나가와를 비롯한 여러 현들에서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약 80채의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였으며 약 270만명의 주민들에게 긴급대피령이 내려졌다. 또한 일본의 온따께산에서 지난 9월 27일에 일어난 화산분출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7일현재 사망자수가 54명으로 늘어났으며 12명이 행방불명되였다.

### 영국에서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무더기비로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약 3 600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여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서부깔리만딴주에서 4일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사태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에서 긴급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41159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